돈 쓰기와 돈 쏘기

(고후8:1~24)

1.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15.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돈 쓰기와 돈 쏘기'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돈 쓰기와 돈 쏘기!

우리에게 들어온 돈을 지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아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 두 가지가 '돈 쓰기'와 '돈 쏘기'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돈 쓰기는 낚시와 같은 것이고, 돈 쏘기는 예포, 예식 때 멋지게 차려입은 군인이나 경찰들이나 제복을 갖춘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공포탄을 쏘게 되는데, 이게 예포입니다, 또 예포 중에서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축포라고도 하지요, 이게 바로 돈 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돈을 우리가 지출할 때는 그 지출하는 돈의 액면가만큼의 대가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

기 때문에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에, 미끼로 떡밥이나 뭐 지렁이 같은 것들, 아니면 바다낚시는 작은 생선들을 미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끼로 꽂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로부터 내 바깥으로 내 던집니다.
무거운 추를 달아서 내던져요.
그렇게 내 바깥으로 던지는 게 지출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낚시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밖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낚싯바늘을 던집니까?
말할 것도 없이, 고기를 낚기 위해서 내 안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내 바깥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 쓰기에요.
지불한 돈의 대가만큼을 회수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근데 돈 쏘기는 축포나 예포와 같이 공중을 향해서 쏴 버리고 끝이 나는 겁니다.
돈은 지출을 하되, 그 지출되는 돈의 액면가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거나, 기뻐할 일이 생겼거나, 축하할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또 부조할 일이 생겼거나, 그래서 경찰들이 죽을 때 동료 경찰들이 예포를 쏘지 않아요?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런 것과 같이, 젊은이들이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점심 내가 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턱 낸다는 말을 요즘 쏜다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거에요.

돈 쏘기, 지출은 하되, 지출되는 돈에 대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출하는 것, 이게 돈 쏘기이고, 돈 쓰기는 지출한 액면가만큼의 대가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식료품을 산다, 이건 돈 쓰기지요, 옷을 산다 돈 쓰기입니다.
또 잘 봐달라고 이렇게 좀 와이로 식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 이거 돈 쓰기입니다.
또 투자하는 것도 돈 쓰기이지요.
반면에, 익명의 기부금, 이름을 내고 기부를 하는 것은 바라는 게 있을 경우가 많아요, 돈을 기부하는 대신에 명예와 존경과 어떤 사회적인 이름을 떨치기 위한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익명의 기부금 이건 뭐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돈을 축포 쏘듯이 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구제모금에 참여하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 충만해서 한 턱 내는 것, 내 기쁨 때문에 한 턱 낼 때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분이 좋아서 턱턱 조카들에게 주는 용돈, 이런 거 다 돈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포의 경우 때의 마음상태와 거의 같이 가지요.
기쁠 때, 환영할 때, 조의를 표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예포를 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엥겔지수가 뭡니까? 총 가계의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엥겔지수가 높을수록 가난한 가정이지요.
그러면 신앙지수는 뭡니까? 신앙지수.
신앙지수는 돈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총지출에서 쓰는 돈과 쏘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지출은 쓰는 돈 플러스 쏘는 돈인데, 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지수일 거예요.
물론 아예, 기본적인 식료품비 자체도 모자라는 절대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 위에는.
그러면 도대체 돈을 쏘는 한계, 돈을 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한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없는 상태, 가난한 상태라 그래도 돈을 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을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지수를 높이려는 바람을 갖는 게 맞다 이겁니다, 신앙인에게는.

신앙지수를 높인다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어느 정도의 돈의 여유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쏘는 마음가짐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돈의 여유가 있느냐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쏘는 마음가짐이 무한대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돈을 많이 늘릴 것인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꼬리만큼이라도 내게 주신 이 돈 중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쏠 수 있겠느냐? 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쏘라는 말씀을 듣고 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돈을 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지수를 높여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한 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쏘는 게 억지로 되지 않거든요.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에 2절에 문자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내용도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우선 여러분, 풍성한 연보라고하는 말에서, 이 연보는 우리가 다 알지요, 구제헌금이나 연보.
'하플로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단어인데 다른 본문에서 연보라고 나올 때와 다른 단어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는데, 이때는 컬렉션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모금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하플로테토스라는 본문의 연보라는 단어는 단순함, 순진함 혹은 한마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이런 단어로서 연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을까, 사도바울이.
자! 우선 이걸 알고 본문을 보면 이해에 어떤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음이 넘치도록 되었다'라는 얘기에요, 한마음이.
여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은, '풍성한 한마음이 넘치도록 흘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왜 할까요?
돈과 연관되어서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돈을 지출하는 마음이 있고, 그 지출한 돈에 대해 대가를 회수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연관 되어서, 마음의 움직임의 방향이 쌍방향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플로테토스'라는 단순함, 순진함, 한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로 연보를 표현한 이유는 뭐냐 하면, 돈을 지출을 하는데 두 마음이 아니라 한방향의 마음만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겁니다.
지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플로테토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보는 근본적으로 돈 쏘기라는 겁니다, 돈 쏘기.
그러니까 헌금과 연보와 구제헌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돈 쏘기'입니다.
하플로테토스!

한마음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회수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십일조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는 돈 쓰기입니다, 하플로테토스의 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투자입니다.
헌금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오해의 표현이고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혀 그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 헌금을 하면서,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한 번 살펴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참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마게도냐 교회들의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주어져 가지고 고린도교인들의 마음이 극심한 시련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환란에 의해서 마음이 시련 가운데 있는 데에서 어떻게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갖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주어졌어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환란이 주어졌으니까 가난이 주어질 수 있지요.
근데 사실,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지역은, 임업과 수산업 등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가난으로 시달릴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핍박이 가해진 거였겠지요.
정확하게 환란의 내용이 뭔지를 표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의 핍박이든지, 로마제국 정부당국의 핍박이든지 간에, 어쨌든 핍박을 통해서 생업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거나 생업이 무지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제약적인 상황에 놓여 있거나 했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이 주어졌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환란 때문에 주어지는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그 환란 때문에 극심한 가난이 주어진 가운데서 연보가 풍성함이 넘치도록 되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모순된 상황들의 조합이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환란의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모순을 가능하게 하는 것.
어쨌든 이 모순이, 사도바울 선생님이 뭐 거짓말할 일은 없겠지만, 이게 진짜였던 것은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는 곳이 마게도냐 지역 아닙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인 빌립보인데, 고린도후서 6장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린도후서 6장10절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연보를 풍성함이 넘치도록 했다'
이 이야기가 고린도교회 상황을 보면서 쓰신 거 같아요.
물론 고린도후서 6장10절은 사도로서의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지만, 바로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상황과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절을 기억하면 좋아요.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은혜의 내용이 뭐에요? 도대체 은혜의 내용이 뭐에요?
우리 앞에서 은혜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은혜란 뭐냐? 지금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이때를 헛되이 쓰지 않는 거, 이게 은혜를 내 거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은혜인데, 오늘 5절에도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여간 너무나 내용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번역들이 많아요.
'우리가 바라던 것 뿐 아니라'라는 뜻은 직역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자면, '그들이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바랐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헌금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어떻게 됐냐 하면, 그들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헌금이 논의의 주제가 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난 뒤에, 주님께 드렸음으로 만나게 된 주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헌금을 낼 수 있는 마음을 지시받고, 깨닫게 되고, 자발적으로 헌금에 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얘기에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십자가 복음이 알려져 있는 지금 여기서, 내가 십자가 복음을 지금 기억해 낼 수 있는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이 죽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연보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풀어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금 여기서,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기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요?
극심한 가난이 주어질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없는 돈에 대해서 미치도록 아쉬워하는 마음, 발버둥 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의 반응은 돈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돈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돈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는 죽기가 쉬워요.
돈이 있으면, 우리는 그 돈을 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면,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돈 쓸 일에 끌려가지 않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완전히 돈에 대해서 죽고, 극심한 가난한 조건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공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드려요.
인격적으로 드리면 거기에 만남이 주어집니다.
돈 쓸 일이 없는 상태가 되고, 돈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 드렸더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접촉면이 극심해진 겁니다.
가난이 극심한 것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접촉면의 확대가 극심해진 거예요.
극대화된 겁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거기서 충만한 기쁨이 생깁니다.

돈과 접촉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 하나님과 접촉했을 때 느끼는 기쁨과 비교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축하할 만한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느낄 때의 기쁨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만한 기쁨이 생겼습니다.
충만한 기쁨 가운데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하면, 돈을 써서 그 돈 쓰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획득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필요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쁨이 충만해지자, 이 땅에서 돈을 씀으로써 만족해지고 기뻐질 일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몇 푼이 있기는 있어요.
그 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돈을 써서 얻을 기쁨이 내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돈을 쏴 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써서 얻을 기쁨과 만족, 이게 필요가 없게 돼버렸으니까, 이 지상에서 무슨 기쁨과 만족으로 내 기쁨과 만족을 더 채우겠습니까?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돈에 대해 죽음으로써, 마음이 전면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버려서 하나님 때문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그 쥐꼬리만 한 돈 있는 걸 썼다고 내가 기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지출 액수 말고는, 극심한 가운데서 버는 대로 다 연보를 해버린 겁니다.
돈을 쏴 버린 거예요, 축포 쏘듯이 예포 쏘듯이 그냥 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연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바로 한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하플로테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이들을 가만히 봤더니,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요.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를 적용해 가지고, 극심한 가난 자체에 대해서 죽어 버리면서 마음이 전면적으로 하나님께 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는 돈 쓰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출을 하되 쓰기를 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기쁠 일을 채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돈, 쥐꼬리만큼 남은 돈이 다 쏘아야 될 대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총알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예포와 축포의 탄환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 향해 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거 아닙니까?
전혀 이 땅에서 돈 쓰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돈을 쏴 버리는 겁니다, 지출에 대한 대가를 바람이 없이.
그때 하늘에 쌓여진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쌓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바다수면의 법칙.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는 게 없다'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 간에 있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마음이 돈에 대해서 죽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다 들여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접촉면이 극대화 되면서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생기고, 내가 충만한 기쁨이 생기면 돈을 쓸 일이 없게 됩니다.
써서 나를 기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게 들어온 모든 돈은 탄환이 돼 버립니다.
대가를 원하지 않는 쏨의 대상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교회 간에 돈 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가난한 교회 없고 부자교회 없고 모두가 다 골고루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느 교회나 예배당에 몇 천억씩 몇 백억씩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근데 이때는 그런 예배당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교회가 예배당으로 교회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정교회로 몇 개씩 모여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배당에, 지금 신약성경에서는 소개되고 있지도 않는 그 예배당에, 몇 천억 몇 백억씩을 들이면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굶고 계시고, 어떤 교회는 돈을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고, 이지경이 돼 버렸다는 얘기지요.

돈 쓰기와 돈 쏘기!
오직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통하여 신앙지수를 높여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마몬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충만한 기쁨 가운데에 머물면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